

2 종합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불친절한 표지판 서울캠 일부 개선, 국제캠은 개선 필요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2019년 교내 현판의 부재와 표지판의 정보 전달 미비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표지판 없는 캠퍼스...“어디로 가야하죠, 선배님?”/대학주보 1644호/2019.03.18.) 7년이 지난 지금 양캠의 표지판 정비 현황을 알아봤다.

2019년 당시 가장 크게 지적됐던 문제는 눈에 띄지 않는 현판과 표지판의 불친절함이었다. 특히 현판이 한자로만 표기돼 있던 정경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대로였다. 또

한 현재 생활과학대학은 외부 현판이 없다. 경영대학은 작은 현판에 ‘오비스홀’이라고만 표기돼 있다.

올해 입학한 김하현(경영회계계열 2026) 씨는 “경희고등학교로 내려가야 하는데 표지판이 없어 길을 잃고 행복기숙사 뒤쪽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일부 건물은 변화가 있었다. 7년 전 한자 현판만 있었던 청운관은 건물의 입구 위에 한글표기가 생겼다. 완공된 후 현판이 없다고 지적됐던 스페이스21 건물엔 각각 한의과대학, 간호과학대학, 이과대학을 표기한 안내판이 설치됐다.

이에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리팀



입구에 현판이 없는 서울캠 생활과학대학 건물 (사진=박류빈 기자)

은 “기존의 표지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보수 및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캠은 현판과 실제 건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홈

페이지에 ‘국제·경영대학관’으로 명시된 건물의 입구에는 ‘동서의학대학원’이 적힌 현판이 설치돼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이 건물은 실제로 동서의학대학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국제경영학과가 해당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이처럼 실제 건물 명칭과 현판이 일치하지 않아 학생들은 혼란을 겪는다. 강정모(응용수학 2025) 씨는 “수강신청 후 강의계획서에 강의실이 국제·경영대학으로 표기됐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 찾아봤다”며 “어느 단과대의 건물인지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

다”고 말했다.

또한 양캠 모두 주요 건물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부족하다. 7년 전 여러 건물로 향하는 길이 하나의 표지판에 화살표로만 표시돼 방향이 불분명했던 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양캠은 별도의 보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캠포스맵은 이미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기 때문에 정문에 안내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제캠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현재까지 안내 표지판과 관련해 민원이나 불편 사항이 없어 보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 무산...자유전공학부 중운위 참여 어려워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학생총투표가 무산되며 자유전공학부(자전)는 올해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보궐선거를 준비 중에 있는 자전은 정식 학생회 출범 시 추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칙 제14차 개정안을 안건으로 한 이번 학생총투표는 세 차례의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율이 43.5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선거시행세칙 제53조 제1항

나목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에 의거해 투표가 무산됐다.

이번 회칙 개정안에는 자전을 단과대 단위로 인정하고 자전의 중운위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투표 무산으로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자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운위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참여는 회칙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현재

로서는 자전의 중운위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자전 내부에서는 학생회 공백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본래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 자전 학생회 선출 선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거가 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도유성(자유전공학 2026)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입후보를 희망한 두 선분이 모두 제출 서류가 미비해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전은 자체적으로 보궐선거를 추진 중이다. 도 비대위원장은 “자전의 경우 학과 특성상 본선거

를 보궐선거 시기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본선거가 무산됐지만 한 번 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총학 측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자전 보궐선거 관련 안건은 지난 2일 제7차 중운위에 제시됐으며 찬성 6표, 반대 5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 자전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도 비대위원장은 “선거 조건이 충족될 시 시기는 4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 측은 보궐선거를 통해 향후

정식 학생회가 출범한다면 중운위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비대위원장은 “작년 학생회장이 중운위에 참여하지 못 할 경우 학교의 중요한 안전이나 여러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학생회가 구성된다면 회칙 개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중운위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회장은 중운위 단순 참관 등 대안에 대해 “확운위에만 참여 중인 다른 학과 단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